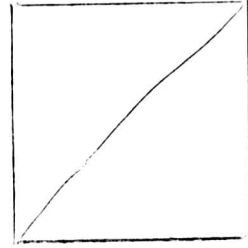


국통 93-1-6P



보관용
(관리과) 5/3

北韓의 對南 協商 戰略

1973.

국토 통일원

目 次

1. 概 要	-----	1
2. 協商戰略의 背景	-----	4
3. 對話以後의 協商戰略	-----	11
4. 結 論 및 展 望	-----	30

1. 概 要

南·北間의 對話는 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協商을 前提로 한다. 協商은 곧 서로의 存立을 意識하면서 「주는것」과 「받을것」을 打算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나 南·北協商의 境遇에 있어서는 몇가지 特殊한 事情이 考慮되어야 한다.

即 韓半島의 分斷이 当初 戰勝國 相互間의 利害關係를 代弁한 것이었으나 分斷 28年의 韓半島情勢와 密着되면서 동시에 对内構造上 理念과 思想, 体制와 利度等 諸分野에 걸쳐 融和될 수 없는 異質性을 促進시켜 왔다. 이러한 对内外的 狀況發展은 諸勢力間의 生存權을 不可避的으로 相互 認定해야 하는 段階에 突入했음에도 韓民族은 마땅히 再統合되어야 한다는 否定할 수 없는 名分 때문에 政治生態自体가 拒否作用을 強要 當하는 結果로 되고 있다.

이러한 点에서 北韓은 한便으로 自己擁護를 위한 現實的 要請과 다는 한편으로는 自己 主導下의 民族再統合實現을 現實的 課題로 그리고 時代的 使命으로 提起함으로서 諸般 協商條件은 他方의 吸收라는 側面이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

換言하면 對內的인 階級鬪爭路線과 國際的인 所謂 民族解放鬪爭路線에 依하여 協商戰略이 展開되며 이는 그 時期마다 造成되는 情勢趨勢에 따라 戰術的 次元을 달리 하고 있다.

北韓勞動黨規約 前文에 提示된 黨의 當面目的과 最終的인 目標은 共產体制의 樹立을 規定하고 있으며 同時에 이러한 目的을 遂行함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路線을 提示했다. 「朝鮮勞動黨은 南·北 朝鮮의 広範한 人民大衆을 自己의 周圍에 튼튼히 團結시키며 勞農 同盟을 基礎로 한 全朝鮮의 各界各種 愛國的 民主力量들과의 統一 戰線을 強化함으로써 우리나라 南半部를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의 強 占과 그 走狗들의 反動統治로 부터 解放하고 民主主義的 基礎 위 에서 祖國의 完全한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鬪爭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綱領的 行動方策은 外形上으로 協商을 拒否하는 強硬한 鬪爭的 立場을 나타내고 있으나 共產化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戰術 的 次元에서의 協商을 全혀 排除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協商肯 定的 觀點에서 볼때 北韓勞動黨規約에서 提示한 行動綱領은 協商을 進行시킴에 있어서 그 對象과 條件의 制約性을 賦与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金日成은 統一을 實現하는 方便을 두가지 側面에서 提示했는데 그 하나는 戰爭의 手段에 依存하는 極端的인 힘의 對決에서의 優位性和 다른 하나는 平和的 手段에 依存하는 이른바 政治的 野合可能性을 前提로 한 共產化 革命의 推進이다.

政治的 野合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基本的으로 協商을 통한 妥協 條件의 設定이 問題되나 協商의 有利한 高地를 占領하는 것도 또 한 힘을 背景으로 한다는 觀點에 서있다.

北韓의 金日成은 協商은 곧 平和的 方法을 통한 鬪爭의 一環이며 盲目的인 平和主義는 決코 容納될 수 없는 것이고 敵과의 協商에서 有利한 談判을 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強力한 軍事力을 背景으로 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였다.

이러한 協商의 基本原則에 따라 北韓은 分斷 28 年の 每時期마다 戰爭과 平和의 二重戰略을 展開해 왔으며 窮極的으로 이 二重戰略이 推究하는 目標은 全韓半島에 共產主義 體制를 確固히 移植하는데 두고 있다.

勿論 오늘의 國際潮流는 現狀固定化라는 列強相互間의 妥協線에서 世界到處의 紛爭地域, 特히 分斷國問題을 一旦 處理해 두자는 基本的 立場에 놓여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外的 狀況展開는 韓半島共產化를 實現하는데 주어진 條件에 不過하며 이것이 곧 北韓勞動黨의 이른바 革命의 進路를 修正 乃至 轉換시키는 要件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點에서 北韓의 協商戰略은 共產化統一을 實現한다는 窮極的인 目標에 依해 構想되며 또한 革命的 鬪爭의 하나의 形態로 된다.

2. 協商戰略의 背景

北韓은 韓半島全域에서 共產革命運動을 高潮化시킬 수 있는 條件을 세가지로 規定하였다.

即 그 하나는 北韓地域에 이미 뿌리 박고 있는 共產政權을 強化하고 共產體制를 確固히 함으로써 全韓半島에 걸친 共產革命運動을 促進시키는 北韓地域의 革命基地化다.

이러한 革命前進基地를 強化하는 方便은 「프로레타리아」獨裁體制를 通하여

- ①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에 依한 全体 住民의 思想的 動員體制 確立
- ② 革命促進을 뒷바침하는 軍事力 優位の 確保 (4大 軍事路線의 強行)
- ③ 戰爭潛在力으로서의 經濟力量強化이며 基本的으로 武装力을 中心으로 한 革命力量의 決定的인 強化로 集約된다.

다른 또하나의 條件은 이른바 韓國에서의 革命力量을 強化하는 問題이다.

北韓은 韓半島에서의 共產主義革命을 達成하기 위해서 統一戰線의 強化와 反美反帝民族解放鬪爭 그리고 階級鬪爭의 當爲性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南韓社会에서 이른바 勞·農同盟을 基礎로한 広範한 統一戰線을 形成하고 이러한 組織을 通하여 強力한 反帝, 階級鬭爭을 展開하기 위해서는 韓國의 階層構造에 立脚한 敵我的 判別이 基本으로 된다.

北韓勞動黨은 美國의 植民地 隸屬化政策, 그리고 日本軍國主義의 復活에 따른 植民地 從屬性과 이를 追從하는 支配階層에 對抗하는 民族主体意識間的 相互 矛盾과 利害의 對立狀況속에서 南韓에서의 共產化革命 可能性을 展望하고 있다.

따라서 基本的으로 打擊對象은 外勢로 規定하고 美帝國主義와 日本軍國主義 그리고 韓國의 支配階層을 包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韓國의 支配階層은 地主 買弁資本家, 反動官僚들이다.

反面 그들이 指摘하고 있는 南韓內 革命力量의 核心勢力은 勞動者·農民들이며 그 補助勢力으로서 青年, 學生知識人, 都市小資產層, 民族資本家들이다.

北韓이 評價하고 있는 南韓內的 各階層別 特性은 다음과 같다.

첫째, 勞動者는 소위 革命의 領導階級으로서 量的으로 長成速度가 比較的 빠르고 積極성과 完강성이 漸次 強化되어가며 特히 南韓內에서 그 鬭爭組織이 自主化되어 가고 있는 傾向이 特徵으로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活動範圍은 어디까지나 經濟鬭爭의 테두리에 限定되고 있으며 行動統一이나 他階級과의 連帶性이 不足하고, 合法的 契機를 찾아 鬭爭에 有利하도록 利用하기에는 不足感이 있으므로 決定的으로 統一的 政治勢力으로서의 鬭爭力量이나 前衛組織化가 欠與되고 있다는 點을 脆弱点으로 指摘하였다.

둘째 農民들은 共產革命의 推進에 있어서 同盟者的 意義를 賦與하고 있으나 그 階級的 制限性, 分散性으로 因한 脆弱性を 克服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問題로 되고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따라서 南韓에 存在하는 農民階層가운데 雇農, 貧農, 中農에 屬하는 階層은 革命力量의 核心隊列에 包括할 수 있는 同盟者的 役割이 賦與되나 根本적으로 地主階層을 打撃對象으로 設定하고 있는 條件下에서 富民에 屬하는 身分에 對해서는 肯定과 否定의 二個側面을 同時에 가지고 있는 對象으로 規定하였다.

即 富農일 경우라도 反動統治가 強化되고 있는 政治現狀下에서 富農은 収奪의 對象에 包含되고 있으므로 그 収奪에 對한 不滿的 要素는 肯定的 側面이나, 封建的 經營方式에 따른 小地主的인 屬性은 否定的 側面이며 따라서 富農은 그들의 革命推進過程에서 一時的 中立을 維持토록 布置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째 學生階層은 비록 부르조아 인데리의 範疇에 屬함으로 基本的 核心隊列에 包含시킬 수 없으나 韓國社會의 特殊性 때문에 共產革命의 先驅的 橋梁的 役割이 賦與된다고 指摘하였다.

即 學生階層은 그 社會的 力量이 龐大함으로 해서 組織化가 容易할뿐 아니라 60年代 以後 南韓學生들의 氣質上으로 보아 轉期를 마련하는 暴發의 導火線이며 이러한 推動力을 有利하게 活用한다면 革命的 危機造成이 可能하다는 打算이다.

또한 社會階級上으로 보아 勞動者·農民階層의 身分을 所有하고 있고 就業條件이 不利한 社會構造的 特性은 바로 活用할 수 있는 要素로 되기 때문에 學生들이 右有하고 있는 敏感性和 鬪志 그리고 進取的 慾求를 刺戟하므로서 모든 階級과의 有機的 結合이 可能해 진다는 것을 特性으로 評價하고 있다.

反面 맑스·레닌主義에 立脚한 思想的欠如로 因하여 이른바 共產化 革命에 有利한 統一戰線 組織化 또는 勞動運動과의 結合이 容易치 못하다는 弱點때문에 南韓革命의 主力軍은 될망정 領導的 役割을 賦與할 수 없는 制限性이 있다고 풀이 했다.

追加的으로 北韓은 韓國軍의 屬性에 對해서도 革命에 有利한 側面과 不利한 側面을 区分하고 있다.

即 全般的으로 國軍은 武裝力을 掌握하고 있으므로 反革命的 立場에 서있을 境遇 그것이 徹底한 打擊對象이 되지만 오히려 共產化革命에 加担할 境遇 그 勢力은 所謂 反革命勢力의 抵抗을 決定

的으로 弱化시키고 도리어 共產化 革命을 促進시키는 力量으로 轉換 可能하다고 打算하고 있다.

다만 그들이 追求하는 共產革命의 便에 加担할 수 있는 素地는 韓國軍의 身分構成上 中 下層將校와 下部 兵士에 있어서 階級意識으로 보아 革命力量이 勞働者·農民의 子女가 庄倒的 多數를 占有하고 있으므로 그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는 點에서 찾고 있다.

以上과 같이 北韓은 韓國內 社會階層을 分析하므로서 和伐兩面에 있어서 그 어떤 側面이던 有利하게 活用할 수 있는 廣大한 底辺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打算하고 있다. 따라서 南韓內 革命力量의 強化는 곧 이들 階層의 組織動員 與否에 달려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다음 三大條件의 하나는 이른바 國際革命力量의 強化를 들고 있다.

換言하면 國際革命力量이 強化란 國際共產主義運動隊列의 決定的 힘의 優位를 指稱하는 것으로서 北韓의 共產化 革命을 支援해 주는 背景力量을 뜻한다.

이러한 點에서 北韓은 韓半島問題가 國際情勢의 推移 特히 東·西關係의 發展에 따라 그 影響을 받고 있다는 點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

即 北韓의 共產化 統一實現은 곧 國際共產主義運動을 前進시키는데 寄與하고 있음을 強調하고 있고 따라서 北韓은 바로 社會主義所屬의 東方초소가 된다는 것을 되풀이 하고 있다.

以上 세가지 条件 다시 말해서 北韓地域에 築城된 共產化 革命 前進基地와 南韓内에 組織化된 共產革命 推進力量 그리고 南과 北의 合作을 實現함에 있어서 背後 支援力量으로서의 國際革命力量의 充分히 成熟되었을 때 비로서 韓半島에서의 窮極的 目標로 設定한 共產主義革命이 可能的 것으로 断定하고 따라서 이러한 革命可能的 素地를 마련하는 手段으로서 이른바 協商의 革命的 寄与價值를 認定하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北韓이 協商戰略을 展開함에 있어서 가장 主要視하고 있는 問題가 바로 共產化 統一實現에 必要하고도 充分한 背景造成이며 그 背景은 自体力量의 強化와 國際的 同盟關係 擴大 그리고 南韓内の 協商對象 選別問題라는 側面에서 考慮되어 진다

概括컨데 平和的 手段에 依한 共產主義 革命의 促進은 基本的으로 反動統治權로 規定된 協商對象과의 互惠 平等的인 妥協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共產主義革命의 抵抗勢力의 政治的 力量이 決定的으로 弱化되고 이른바 共產革命을 支持·同調하는 勢力의 底辺이 擴大되고 그 政治力量이 強化될 수 있는 背景條件이 造成되므로서 비로소 協商의 實効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點에서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協商은 곧 共產革命을 推進할 수 있는 強力한 背景造成에서 부터 窮極的인 政權의 奪取에 이르기 까지 그 時期에 따라 多樣하게 適用되고 있다.

그러므로 協商戰略의 背景은 最終目標를 誘導하는 條件의 造成對

象이 되며 다른 한便으로는 그 目標에 接近할 수 있는 條件이 된다.

北韓이 主張하고 있듯이 「革命은 결코 輸出할 수도 없고 또 輸出하지도 않는다」는 立場은 적어도 南韓의 社会制度에 대해서는 南韓國民들의 意思와 選擇에 關한 問題로 일단 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이 共產化統一, 即 全国的 範圍에서의 共產主義 革命遂行이라는 窮極적인 目標가 修正되지 않는 限 協商戰略의 背景은 韓国内部に 있어서 政治, 經濟, 文化, 社会, 軍事等 諸分野의 狀況展開와 이의 主体가 되는 対象階層이 擴大가 된다.

3. 對話以後에 있어서의 協商戰略

北韓이 分斷 28年 동안 展開해 온 協商戰略은 韓半島 全域에 걸쳐 社會主義를 徹底히 移植시키는데 그 目標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表現하기 위해서 南·北 諸政黨 社會團體代表로 構成되는 南·北聯席會議를 통해서 拳族的인 統一戰線의 名分아래 共產化 統一을 推進시키는 것이었다.

勿論 統一된 韓國의 社會가 어떠한 體制로 될 것이냐 하는 問題에 관해서 北韓은 全體人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委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全體人民의 意思가 곧 共產革命을 推進하는 便에 있다는 大前提 아래에서 오직 南韓社會의 選擧問題만을 提起해 온 것이 特徵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協商戰略的 觀點은 北韓地域을 如何히 革命前進 基地로 構築해 놓고 對南協商에서 一糸不乱한 共產化計劃을 推進하느냐에 焦點이 두어졌다.

이와함께 南·北對話가 成熟되어 간 時期에 있어서 北韓의 協商 態度는 이른바 共產革命의 打擊對象으로 規定하고 있는 階層까지도 그 權限에 끌어 드리는 協商對象의 擴大와 韓國內 體制의 改造를 要求함으로써 南韓人民이 主体가 된 南韓革命與件의 造成, 南·北間 交流擴大를 통한 所謂 革命支援與件의 造成 그리고 이러한 狀況을 바탕으로 韓國安保體制의 互解를 促進하는 拳族的展開로 集約된다.

가. 協商對象의 擴大

北韓은 基本的으로 南韓革命力量의 基本階級을 勞動者, 農民에 두고 그 補助力量으로서 青年, 學生, 知識人, 民族資本家와 小資本家階層을 包括하고 있다.

그러나 71年8月 「시하누크」歡迎演說에서 金日成은 「南朝鮮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하는 모든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아무때나 接觸할 用意가 있다」고 말함으로서 外形上 그들은 協商對象을 執權黨에 까지 擴大할 意圖임을 밝혔다. 그러나 北韓이 協商對象으로서 執權黨인 民主共和黨까지를 包含시키고 있는 것은 決코 革命의 打擊對象으로 基本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地主, 売弁資本家, 反動官僚까지 接受한다는 意味는 아니었다.

換言하면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共和黨이 차지하는 階層은 그 下部構造로 보아 그들이 主張하는 이른바 革命力量階層을 廣範히 包括하고 있기 때문에 上層構造의 打擊對象보다 廣範한 底辺을 形成하고 있는 革命力量階層을 意味한 것이었다.

또한 南·北韓赤十字予備會談이 進行되어온 72年 1月 日本 読売新聞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韓間의 接觸과 連繫을 強化하며 統一問題를 풀기 위해 南·北政治協商을 進行할것을 主張한다고 前提하고 「民主共和黨, 新民黨, 國民黨을 비롯한 모든 政黨들과 아무때나 合意하는 任意의 場所에서 會談할 用意」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立場을 取하게 된 理由로서 金日成은 平和的으로 統一

問題를 풀자면 여러가지 政党들 사이에 祖国統一에 관한 政見들을 交換하고 合理的인 方途를 模索하기 위해서 双務的인 또는 多務的인 協商들을 活潑히 進行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北韓의 이러한 立場은 客觀的으로 두가지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全体民族의 運命을 決定하는 問題이니 만큼 여러階層의 意思와 立場이 統一을 實現하는 具體的 方途에 反映되도록 해야 한다는 두個 体制의 對峙狀況에서 北의 一糸不乱한 프로레타리아 獨裁黨과 南의 各其 利害를 달리하는 政党들과의 多務的 接觸 또는 双務的 接觸을 實現한다는 關係設定이다.

多數意思의 反映이란 첫번째 觀點은 統一促進過程을 單純化시켜 볼때 아주 抽象的이면서 普遍性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論題의 名分이 뚜렷하다.

그러나 實質的인 移行過程에서 組織化되지 못한 萬人의 意思가 그대로 反映될 수 있다는 點에는 多少間의 非現實性이 內包되어 있다. 이런 點에서 多數의 意思를 反映시켜야 한다는 立場도 名分 爲主의 戰術的 口號로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다음 南·北間의 두個의 体制 卽 그 어느쪽도 모든 階層이 하나의 体制에 利害關係가 密着되어 있다는 假定下에서 보면 이른바 多務的 接觸이나 協商이란 無意味한 것이 된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 獨裁黨으로서 全社會를 組織化하고 있는 北韓과 多數政派의 利害와 對峙되어 있는 狀態下의 韓國이 政治的 協商을 展開함에 있어서 多務的, 双務的 協商의 意義는 相當이 커

진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다.

이 問題와 關聯하여 南韓의 革命鬪爭과 北韓의 支援이라는 相關關係에서 볼 때 雙務的, 多務的 協商戰略의 意味는 매우 重要하다.

即 北韓은 南韓의 革命은 南韓人民自身の 課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67年 以後 南韓地域에는 맑스 레닌主義를 綱令으로 내세운 統一革命黨이 活動하고 있는 것으로 偽裝되고 있다.

61年 9月 北韓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提示한 對南革命課業中の 하나가 南韓內에 맑스·레닌主義를 具現하기 위해 鬪爭하는 地下黨 組織工作이며 이 地下黨組織이 合法的인 政治活動을 展開함으로써 이른바 南韓革命의 主導勢力으로 役割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雙務的, 多務的 接觸과 協商을 進行시키다는 觀點은 곧 韓國內 合法, 非合法的인 共產化 組織이 南·北 政治協商過程에서 南韓側의 權利에 끼어 發言權을 行使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展望하게 된다.

따라서 南·北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가 同時的으로 參加하는 南·北政治協商의 展開는 곧 韓國政治體制가 容納하는 最少階層 即 執權黨으로 부터 모든 合法的 政黨 및 社會組織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非合法的 組織이나 이를 빙자한 北韓主導下의 偽裝組織에 까지 擴大될것이며 심지어는 個別的 人士라는 縮少된 範圍까지 及할 수 있는 可能的 素地를 마련한다는데 그 核心이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이 段階論에 立脚하고 있는 韓國의 立場에

對抗하여 包括的이며 一括的인 問題解決의 立場을 取하고 있음은 協商戰略이 곧 韓半島 産化에 服從하는 範圍에서 設定되고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해주고 있다.

1972年 9月 日本 毎日新聞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의 高位級會談을 進行시키는 過程에서 다시 그 對象範圍을 擴大해야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即 南·北調節委員會를 하루 빨리 構成運營하려고 한다는 立場을 提示하면서 그러나 統一問題는 「南·北赤十字 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으로는 풀 수 없는 問題들이 있다.」고 말하나 「根本的 問題들을 解決하려면 더욱 幅 넓고 多方面的인 接觸과 協商을 實現하여 오랜 期間에 걸쳐 쌓인 南·北間의 不信任과 誤解를 풀고 理解를 增進시키며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一連의 具體的 方策들을 討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立場에서 부터 出發하여 「南·北 朝鮮 諸政黨, 社會 團體들의 連席會議」나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 南韓의 「國會議員」들간의 聯合會議같은 政治協商을 時急히 進行할 것을 主張한다고 했다.

이처럼 北韓은 그들의 協商戰略展開에 있어서 革命의 打擊對象과 革命力量을 分別하고 이를 基本的인 立場으로 明白히 規定하고 있으면서 表面上의 打倒口號로 부터 打擊對象의 內部 克服이라는

觀點으로 轉換하고 協商對象의 幅을 넓히며 그 底辺을 파고 들어 가는 戰略的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리고 協商 對象의 包容手段으로서 南·北間의 接觸을 계속 擴大하는 方向으로 問題를 誘導하고 있다.

即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라는 人道主義的 接觸에서 부터 高位級 政治會談에 까지 對話의 通路가 開設되고 있는 現實에 더하여 政黨, 社會團體 連席會議로 부터 南北 立法機關의 聯合會議 그리고 個別的 接觸에 이르기 까지 多樣한 接近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態度는 南·北間의 對話를 通하여 統一問題에 이르는 廣範한 問題들을 討議實現하는 것 보다 오히려 共產革命을 促進시키는 背景條件의 造成이라는 側面에 協商의 戰略的 價値를 試與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 協商條件의 設定

協商對象의 擴大는 곧 共產革命을 促進시키는 背景與件造成에 그 戰略的價値를 賦與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로 이러한 與件的 造成은 革命對象地域이 南韓地域을 意識하고 그 政治構造를 소위 共產化 革命에 有利하게 改造 또는 變質시키는 데 따라 決定된다.

北韓의 統一政策은 「美帝國主義 侵略政策」에 對抗하는 「反帝 . 民族解放鬪爭」의 性格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따라서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對南革命實施의 基本條件은 韓國으로 부터 美軍을 撤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美軍의 撤退를 위한 鬪爭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重要한 一部分으로도 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國際的인 反美隊列에 能動的으로 參與하면서 南韓國民自身の 鬪爭에 따라 駐韓美軍의 不可避한 撤収狀況을 展望하고 있다.

이러한 展望을 可能케 하기 위해서는 南韓內 政治體制를 改造하고 非合法的인 政治組織을 合法化시키도록 全力量을 傾注하는 것이다.

더우기 北韓이 韓半島 全域에 共產主義體制를 移植하기 위해서 強力한 反共體制를 瓦解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重要한 問題로 提起된다.

따라서 北韓은 南 . 北의 對話 即 南北協商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韓國의 政治體制를 變質시키며 이른바 對南革命 가능한 條件造成에 有用한 條件을 設定하고 있다.

即 첫째로 美軍撤収를 비롯하여 韓國의 安保와 密接히 結付되고 있는 國際的 連繫의 斷絶이다.

71年 4月 北韓의 8個項 統一方案에서 美軍의 撤収와 韓·日條約과 韓美條約의 廢棄 또는 無効化를 要求한 것이나 UN과의 法關係를 白紙化시키자는 그들의 企圖는 모두 이러한 協商條件의 先次的 意味를 나타내 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立場은 韓國統一問題는 民族内部問題로서 外勢干涉을 基本的으로 排擊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北韓은 南·北 對話를 進行시키는 過程에서 多様な 方法으로 條件을 規制하는 提議를 내놓았다.

그들의 主張에 依하며 韓國은 美帝國主義者들의 強行을 合理化하며 美帝國主義者들과 軍事同盟關係를 維持發展시키려 노력함으로써 「7.4 共同聲明」에서 合意한 自主的 原則을 違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日本軍國主義는 再生되고 있으며 특히 大東亞共榮圈의 옛 妄想에 사로 잡혀 海外膨脹을 위해 出달음 치고 있다고 主張한다.

이와 關聯하여 73.4.北韓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에서 金一은 「7.4 共同聲明」의 3大原則中的 하나가 外勢依存이나 外勢干涉없이 自主的 統一을 實現하는 것이며 이는 美軍을 撤収시키며 其他 外部的 勢力의 干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美國은 南·北對話가 始作된 첫날 부터 對話를 助贊하며 닉슨主議에 따라 「朝鮮사람끼리 싸우게 하는 方法」을 利用하면서 好戰分子들을 충동하고 있다고 前提하면서 萬若 美軍이 나가면 北韓의 軍隊를 自進해서 20萬以下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北韓의 發議는 韓國의 安保와 直結되고 있는 美國과 日本의 背後支援勢力을 遮斷하므로서 事實上 韓國內部에서의 共產化 革命을 促進하는 基本條件을 마련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相互 信賴와 理解를 돕기 위한 분위기造成이 重要하며 이는 軍事力의 大幅減縮과 그 狀態 下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하자는 것이다.

72年 1月 南·北間에 人道主義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對話가 進行되고 있는 동안 北韓은 現行停戰協定을 南北間의 平和協定으로 바꾸는 問題를 提起한 以來 南·北間 平和協定締結內容을 다음과 같이 提起했다.

- ① 南·北의 武力增強과 軍事競爭을 中止
- ② 美軍을 包含한 모든 外國軍隊의 撤収
- ③ 南·北軍隊를 10萬 또는 그 以下로 減縮
- ④ 南·北軍備의 大幅減少

⑤ 外國으로 부터의 一切의 武器 作成裝備, 軍需物資 搬入中止

또한 73年 6月 체코의 「구스타보 후사크」를 歡迎하는 金日成의 演說에서도 南·北間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지는 것은 民族大團結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南·北關係를 改善하며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가장 懇切하고 關鍵的인 問題라고 指摘하였다.

勿論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함으로써 外形上 平和的 분위기 造成하에 南·北의 平和的 協力を 發展시키는 契機中 하나의 要件은 된다. 그러나 平和協定의 實効性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協定에 規制된 內容에 있는 것이 아니라 基本的으로 平和的 統一을 實現할 立場에 놓여 있는가가 基本的인 核心이 된다.

北韓의 主張대로 南韓革命은 南韓人民 自身の 力量에 依하여 推進되는 것이고 또 南韓內에는 暴力에 依한 主權奪取를 當面目 標로 내세우고 있는 맑스레닌主義黨과 統一革命黨이 存在한다면 南 北平和協定에 따른 南·北間 軍備縮少는 곧 北韓과의 關係에서 均衡이 維持될지 모르나 統一革命黨의 偽裝과 共產革命組織을 同時에 相對로 한 均衡이라고 볼수는 없다.

이런 點에서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軍事的 對峙狀態를 止揚하기 위한 南·北平和協定이 締結은 北韓의 協商條件의 하나이면서 바로 基産革命에 服從하는 北韓協商戰略의 條件이다.

세째 로는 韓國政治体制의 變質追求이다.

北韓은 韓國이 對話를 進行시키면서도 안에서는 勝共, 對決, 實力 培養등 桃筈的 口號를 提起하면서 戰爭準備에 服從시키며 10月 維新以後 社會를 恐怖분위기로 끌어 넣으며 平和指向的인 原子力量을 苛酷하고 北韓을 찬양하는 無數한 사람들을 檢拳, 投獄하며 소위 革命家 愛國者를 학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南·北間의 對話가 眞實로 成功하기 위해서는 反共法과 國家保安法등 共產主義와 接近하려는 行爲를 犯罪視하는 法律을 廢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政治活動을 自由롭게 할 수 있도록 保障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主張은 南과 北이 對話를 進行시킴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과 制限된 接觸에 局限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広範하게 그리고 合法的으로 接近이 可能하도록 體制를 改造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된다. 때문에 協商自体가 互惠平等에 依한 「互相主義」原則에 立脚한다면 北韓의 境遇에 있어서도 同一하게 適用되어야 한다.

即 「프로레타리아」獨裁體制는 變質되어야 하며 따라서 各異한 政派가 다른 이 自派의 政綱, 政策을 내걸고 政治에 參與할 수 있도록 北韓의 憲法이 修正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그들 自身の 體制上的 問題를 一切 拳論함이 없이 韓國內部事情의 變化만을 促求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協商對象의 擴大에 따른 共產革命勢力的 広範한 引入과 이들의 合法的 政治活動을 容納하는 그러한 社會體制가 아닌 限 協商이 無意味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提言하면 北韓은 協商을 通하여 共產革命을 可能케 하는 素地를 마련해야 한다는 現實的 慾求에 執着하고 있으며 이러한 協商條件의 規定에서 南·北協商의 限界點을 提示해주고있다.

以上 北韓의 協商條件은 韓國의 安保體制를 互解하고 南韓內에서

自由로운 共產革命活動을 展開할 수 있도록 條件을 設定하는데 核心이 있으며 따라서 對話의 近密과 無関하게 革命推進을 위한 手段으로서 協商戰略을 驅使하고 있다.

따라서 協商條件의 設定과 이의 意欲은 共產革命을 進行하는데 重要な 戰略的 役割을 하고 있다.

다. 協商內容의 飛躍

北韓은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 까지 平和的 方法 即 南.北間의 協商을 通해 統一問題를 解決하도록 要求해 왔고 따라서 各異한 協商內容을 그때마다 提起해 왔다.

그러나 南,北對話以後 北韓이 展開하고 있는 協商展開方向은 낮은 次元으로 부터 높은 次元에로의 漸進的 擴大라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換言하면 北韓은 協商의 對象에 있어서 赤十字會談 南·北調節委員會等 그會談性格自体가 政治的 次元에로 옮겨짐에 따라 南.北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 또는 個別的 人士에게 까지 그 門戶를 開放해야 한다고 主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討論 主題에 있어

서도 그 主題內容을 漸次的으로 飛躍시키고 있다.

72年 1月 「說亮新聞」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美軍을 撤去시킨 條件下 南北間의 接觸과 連繫를 強化하고 統一問題를 풀기 위해 南·北政治協商을 進行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單純한 人道主義的 問題의 解決만으로는 그 實現可能性이 희박하다는 시사를 주었다.

그리고 同年 7月 「7·4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고 南·北間의 高位級 政治會談이 開催될 展望을 열어 놓은 時點에 이르러 南·北調節委員會를 하루 빨리 構成할 것을 促求하면서도 「統一問題는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같은 制限된 範圍의 接觸과 協商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다」고 말하고 多方面的 接觸과 協商을 提起했다. (72年 9月 12日 每日 新聞記者와 金日成會見)

이처럼 協商의 幅을 넓히면서 73年 2月 7日 「2·8節」 記念行事에서 한 吳振宇의 報告에서는 南·北會談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했다.

即 南·北會談은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하여 民族大團結의 原則아래 多方面的인 合作이 實現되어야 하며 그 具體的 方案으로서 現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므로서 平和的 統一氣運을 더욱 發揚하며 政治, 經濟, 文化, 軍事, 外交等 諸分野에서의 合作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主張은 韓國維新憲法採択 以後 韓國에 造成된 情勢가 이른바 對話를 통한 南韓에서의 革命條件造成勢力에 흐린 展望을 보여 주고 있고 또 美·中共의 接近과 美·蘇關係는 곧 南北 對話를 推進하는 北韓에 對하여 새로운 局面을 열어 놓고 있다는 狀況評價에 基礎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美國의 細細政策에 對應하는 中共 또는 蘇聯의 相衝된 立場과 그것이 北韓의 對話政策에 對한 相異한 見解를 誘發하고 있다는 狀況下에서 北韓은 解氷되어 가는 南·北關係發展에 새로운 緊張을 던져 주었다.

即 吳振宇는 그의 報告에서 「韓國이 繼續 武力을 增強하고 戰爭準備를 強化한다면 應分の 對應措置」를 取하게 될 것이며 「끝끝내 階級戰爭을 強要한다면 그것을 傍觀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보여 주고 있다.

말하자면 北韓은 階級鬭爭不辭라는 強硬한 姿勢로 부터 多方面的 交流라는 穩健한 對話推進努力에 이르는 極과 極을 내달으며 多 樣한 方便을 驅使하고 있다.

73年4月 北韓高人民會議 第5期2次會議에서 金一은 美軍撤収를 비롯한 其他 外部努力의 干涉을 排除하며 情勢를 尖銳化하는 言 行을 삼가할 것과 制度를 相對方에 強要치 말아야 하며 社會民 主化와 各界各派 그리고 全体 人士의 政治活動의 自由를 保障해 야 한다고 前提하고 政治·經濟·軍事·文化·外交등 多方面的인 合作을 提起하였다.

經濟分野에 있어서 ①北韓地域에 充分히 埋藏된 地下資源의 共 同開發 ②漁物의 開放 ③共同漁場 ④南韓의 灌溉工事共同推進 등 經濟的 可能性을 民族經濟의 自立的 發展을 위해 統一的으로 利 用하는 問題

科學·文化分野에 있어서 ① 民族語의 統一研究 ② 歷史의 共同研究 ③ 固有한 民族的 風貌를 빛내는 問題 ④ 芸術· 體育團의 交換 ⑤ 單一한 民族芸術團, 單一한 體育團을 構成하 여 共同進出하는 問題

軍事分野에 있어서 外勢侵略을 막는데 對한 共同防衛問題

그리고 外交分野에 있어서 對外活動의 共同步調問題등이다.

그러나 韓國側에서 段階論에 立脚한 經濟·文化的 交流의 先次 的 解決提議가 具體的으로 表面化되자 北韓은 協商內容의 焦點 을 多方面的 交流에 앞서 緊張緩和를 實現하기 위한 軍事問題

의 解決 優先을 내세우고 實質的 妥結을 忌避하기 始作한 것이다. 말하자면 國際情勢의 不確定要素와 革命推進의 障礙的 与件을 克服하는 方便은 곧 問題의 核心에 깊이 파고 들어가 하나씩 하나씩 協力の 바탕을 이룩하기 보다는 協商의 主題를 그때 그때 뒤바꾸므로서 窮極的으로 그 어느 하나도 實現시키지 않은채 諸問題를 一旦 討議해야할 問題点으로 浮刻시켜 놓는데 根本的인 意圖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때문에 南·北對話의 進歩는 그것이 크고 작은 問題를 莫論하고 相互 合意하고 또 實行됨으로서 有益한 것이나, 그것은 곧 革命의 必要條件이 되지 않을 境遇 決코 妥協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可能的 契機로서 役割할 뿐이다.

이러한 立場에 서있는 北韓은 韓國의 「6. 23 平和統一外交宣言」에 依하여 南·北狀況이 새로운 局面으로 發展하게 되자 南·北協商의 窮極的 目標를 表面化시켰다.

韓國에서 「6. 23」宣言이 發表된지 10時間 뒤에 北韓을 訪問中인 捷코共産黨 總秘書 「구스다보·후사크」를 歡迎하는 자리를 빌어 南·北對話의 基本問題가 提示됐다.

即, 첫째로 방대한 武力을 가지고 서로 軍事的으로 對峙하고 있다는 現實은 곧 平和威脅의 要因이며 南·北間의 該解와 不信의 그늘로 되고 있기 때문에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시는 것이 懇切하고도 關鍵的인 問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① 武力增強 軍備競爭

中止 ② 모든 外國軍隊撤収 ③ 軍隊, 軍備의 縮少 ④ 武器
搬入中止 ⑤ 平和協定 締結등 諸問題가 處理되어야 한다.

둘째,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등 諸分野에 걸친 多方面的
合作·交流는 統一의 前提條件 마련에 重要한 意義를 가지며 이러
한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가 實現되어야 平和協定도 보다 円滑하게
된다.

셋째, 對話는 北과 南의 当局者들 사이의 範圍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全民族 範圍에서 벌어져야 하며 따라서 北韓의 對動者,
勤勞農民, 勤勞인테리, 青年學生, 兵士들과 南韓의 勞動者·農民·青年
學生·知識人·軍人, 民族資本家, 小資產階級등 各界各局人民들과 政党·
社会團體代表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召集해야 한다.

네째, 高麗聯邦共和國의 樹立과 單一國號에 의한 UN의 加入을
實現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北韓의 提議는 그 狀況評価로 보아 單選·單政을 反對하
기 위하여 展開했던 48連帶會議 召集當時와 同一視하고 있다.

6. 23. 金一成演說에서 나타난 具體的 方案들을 評価해 보면 平
和協定の 締結은 곧 6. 25戰爭以後부터 北韓이 戰略的 口號로서
一貫하게 主張해온 內容으로서 「停戰協定の 鞏固化」, 「平和保障을
위한 國際會議召集」 「武力不行使協定」, 「武力不行事宣言」등으로
表現되어 왔다. 이러한 平和保障方案은 其實 南·北當事者에 依한
現實認定을 訪導하는 方便이었으며, 때문에 北韓은 北韓地域에 共產
主義者들이 統治權力을 行使하고 있다는 現實을 認定해야 한다고

喚起시켜 왔다. 그리고 多方面的인 交流는 事實上 「6. 23」平和統一外交宣言에서 明白히 提示하고 있음에도 北韓은 平和協定締結이 平和的 統一의 實現을 위한 關鍵問題로 못박고 오히려 副次的 意義로 格下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多方面的 合作이 實現됨으로서 平和協定도 보다 円滑히 된다는 點을 強調함으로서 平和協定締結과 多方面的 交流는 先後를 가릴 수 없는 必要한 條件으로 된다. 여기에서 北韓의 提議는 必要에 의해서만이 妥協한다고 하는 속셈이 들어나고 있다.

또한 「大民族會議召集」 問題는 바로 諸政黨·社會團體들의 政治 協商을 指稱하는 것이나 이 提議가 企圖하는 바는 南·北間의 信賴를 回復하는 段階的 努力에 앞서서 韓半島狀況을 그들에게 有利하도록 轉換할 수 있도록 民族的인 統一戰線形成에 主眼點이 있다. 이러한 着想은 곧 「48 南·北聯席會議」가 南·北政治指導者들의 綜合的 組織으로서 具體的 統一方途를 提示하기에 앞서서 可能的 地域에서의 總選反對運動의 名分으로 活用된 史實에 비추어 評價해야 한다. 換言하면 南·北總選을 拒否하고 그 代案으로 提起된 南韓에서의 單選單政反對에 先次的 鬭爭目標를 設定한 것은 共產體制移植에 障礙가 되는 總選契機는 默殺하며 오직 共產化 革命의 有利한 條件이 造成되도록 狀況을 展開한데 있었다는 點을 想起할 수 있다.

이와함께 聯邦制의 提案은 그것이 새로운 着想이 아니지만 「6. 23 平和統一外交宣言」에서 提示한 UN同時加入論에 對抗하는 要件

으로 設定된 것이다.

金一成은 同演說에서 南·北이 各其 UN에 加入하는 것은 現狀을 固定시키고 分断을 永久化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嚴密한 意味에서 分断 28年동안 北韓의 對外的 活動이나 對南 提議에서 現狀을 認定하는 態度를 明白히 해왔다.

韓國의 「할슈타인」原則에 立脚한 外交的 牽制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國際적으로 同時承認을 獲得하기 위한 努力을 傾注해 왔고 이러한 立場은 國際棧構에의 加入이나 南·北間의 協定締結提議에 이르기까지 広範하게 具現되어 왔다.

이 問題에 관하여 北韓은 平等互惠의 原則에서 國家關係를 發展시키고 있으나 이것을 두개의 韓國 造作에 利用하는 것을 反對한다는 立場을 取함으로서 가볍게 넘기고 있다. 萬若 이러한 論理가 成立된다면 現時点에서 UN에 南·北이 同時に 加入하는 問題를 반드시 分断을 永久化하여 統一을 拒否하는 側面에서 理解하기 어려워 진다.

이러한 点에서 볼때 北韓은 共產革命에 有利한 條件이 成熟되기까지 不斷히 協商主題를 飛躍시킴으로서 多様な 問題들을 提起해 놓고 그것을 革命possible한 要件으로 發展시켜 나가려는 基本的 原則에서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해 준다.

4. 結 論

以上 北韓의 協商戰略은 全韓半島에서의 共產革命戰略의 一環이며 素朴한 意味에서의 統一指向的 觀点에서 理解되기 어렵다.

따라서 基本的으로는 共產化 統一의 三大力量 即 北韓地域에서의 革命前進基築城과 韓國內에서의 階級鬭爭을 骨幹으로 하는 革命力量의 強化. 그리고 國際共產主義運動과 密接히 結合한 南·北韓 反帝·反美運動의 現實化등 狀況 訪導에 그 核心的 役割이 賦与되고 있다.

이미 北韓은 南·北對話가 進行되는 過程에서도 이른바 主体思想을 根幹으로 하는 思想的 統一團結을 強化하며 反帝植民地 民族解放運動과 各國의 勞動運動을 支援하고 계속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 로 나가는 것을 基本的 立場으로 밝혔다. 그럼으로 南·北의 對話는 南·北間의 信賴를 回復하고 異質性을 同質化하는 努力에서가 아니라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 로 나가기 위한 戰略的 方便으로 活用하고 있다.

이런 点에서 보면 北韓의 社會體制上 變質을 超來케 할 어떠한 協商條件도 그들이 接受할 수 없다는 것이 明白하며 따라서 統一이라는 民族的 大命題에서 볼때 南·北의 두體制를 暫定的으로 認定한다는 名分에 執着하게 된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北韓이 展開해온 協商戰略은 階級戰爭이라는 革命戰爭의 方便과 全政黨·社會團體 및 全體人民을 網羅한 統一戰線 形成에 따른 平和的 共產化 合作에 이르는 二重戰略을 內包

하고 있으며 韓國社会体制의 變質을 促進시키는데 力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韓國社会体制의 變質을 促進시키는 基本要件으로서 政治・經濟軍事등 諸分野에 걸친 韓國의 國際協力体制의 互解 및 韓國民自身에 依한 革命力量 強化를 들고 있다. 이러한 假定아래 現實的으로 韓・美, 韓・日關係를 形成하고 있는 南方 三角關係를 分離・互解시킴으로서 革命的 打擊對象인 保守階層을 國際적으로 孤立시키고 이 階局을 南韓內 革命的 基本力量으로 打倒하므로서 비로소 南과 北은 政治的 合作을 實現하기 위한 眞實한 協商이 進行될 수 있다고 打算하고 있다.

이러한 点에서 設使 南・北間의 對話가 進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 共產主義와 自由民主主義의 兩立을 前提로 한 妥協을 實現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北과의 對話는 共產化 革命的 執着에서 끌려 날 수 있도록 說得하는 段階에 不過하며 統一方途를 追求하는 段階로 理解될 수 없다.